

# 탄소 CNG제작용체 CE&G 전주에 등지

###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내 80억을 투자 전주공장 신설 20여명 고용 예상

유럽시장 진출을 노리는 탄소CNG압력용기 제작 선도기업이 전주에 새물결을 댈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이 강인철 (주)CE&G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CNG제작용체인 (주)CE&G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 내 1단계 투자계획을 확정된 (주)CE&G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총 8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산업단지내 3300.2㎡(1000평)에 전주공장을 신설하고 약 20여명을 고용기로 했다.

또한 이 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CNG 차량의 보급 확대와 시장점유율 통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2년마다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소재를 활용해 CNG압력용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탄소인프라가 풍부한 전주로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먹거리인 전주의 탄소융합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CE&G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유럽시장 확장 진출 계획에 맞춰 신차용 대규모 시장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17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차량의 5~10%를 CNG로 전환하는 계획을 확정·발표하는 등 현재 CNG 차량의 증가 속도를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적으로 4000만대 이상의 CNG차량이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협



전주시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이 (주)CE&G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소재 CNG 압력용기 제작업체인 (주)CE&G와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약식에서 "전주에 잘 오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전주시에 와서 할 수 있는 일, 도와 줄 수 있는 일은 나서서 찾아 도와드릴 것"이라면서 "기업을 전주에서 하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

이지만 독일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지면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청년들의 호감도가 급증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CE&G는 지난 2009년 스웨덴

에서 PCT특허(자동차용 비원형 사각 연료용기 제작기술)를 획득하고 지난 2011년에는 미국복합소재 생산자대회에서 '무한 시장성장 가능성 제품'으로 인정돼 대상인 'ACE'상을 수상하는 등 탄소CNG압력용기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영재기자

## 안승근 전북대 치전위원장 3,000만원 기탁

### 모교 발전·후학들에 양질의 교육환경 만들어주기 위해 결심

안승근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대학 경쟁력 향상과 후학 양성을 위해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전북대는 23일 본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안 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대 치의학과 81학번 동문이기도 한 안 원장은 발전기금을 통해 모교가 더욱 발전하고 후학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안 원장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기금에 편입돼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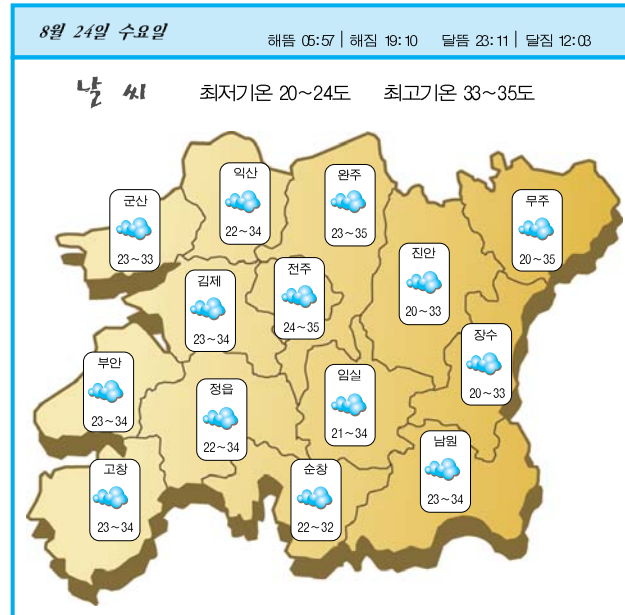
안 원장은 "평생을 대학에 몸담으며 대학에서 받은 것이 많은데 이렇게나마 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더 기쁜 마음이다"며 "전북대학이 성장을 넘어 성숙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는 23일 본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안 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30% 건강검진 신청

전주시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을 돌보고 나섰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2015년 기준 498명, 전라북도 교육청 집계)의 30%에 해당하는 150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시행중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이뤄지며, 검진항목은 상담, 진찰,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17개 항목의 기본검진과 감염성 질환 및 산부인과 등 4개 항목의 추가검진이다.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과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 서비스 및 꿈드림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및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들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전주시의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수능 25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 내달 9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일선 고교

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내달 9일까지 12일간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

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며, 성적은 체점을 거쳐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IMSIL-GUN 임실군**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